

이강인 '데뷔골'

황의조 '원더골'

황희찬 'PK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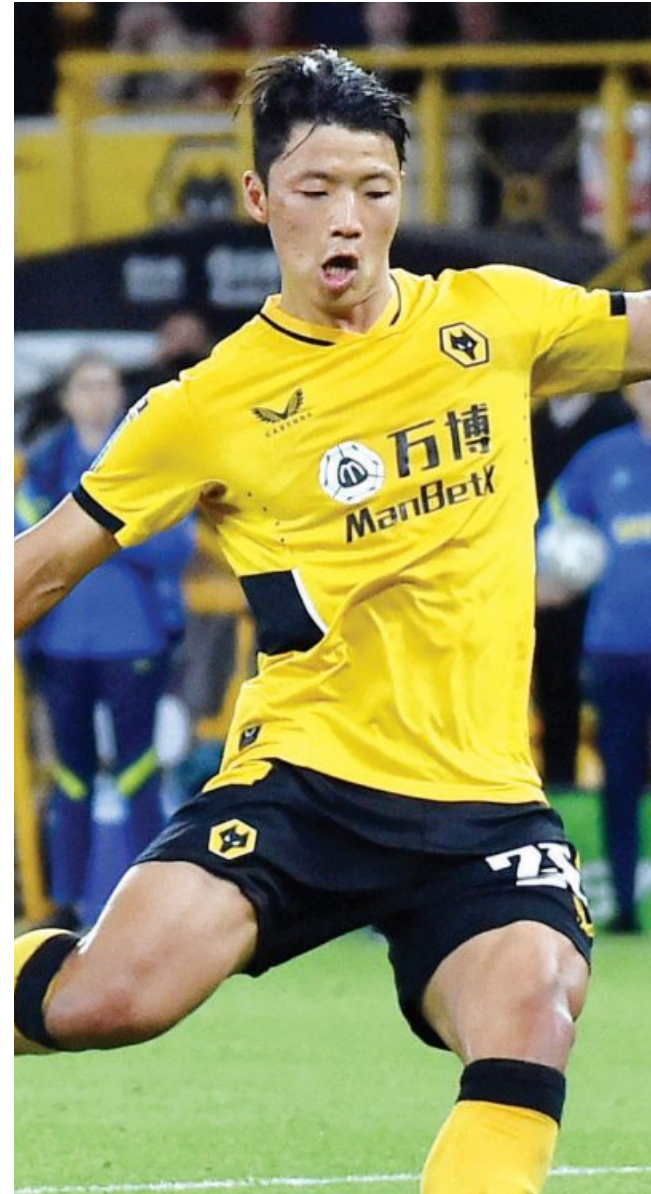
손흥민 '16강 골인'



이강인



황의조



황희찬



손흥민

유럽 리거 '펄펄'... 미소짓는 벤투

손흥민-황희찬, 카라바오컵에서 코리안 프리미어리거 맞대결 이강인 레알전서 마요르카 입단 첫 골... 황의조 25m 캐논 슈트

한국 축구의 유럽 리거들이 모처럼 소속팀에서 동시에 신바람을 내 '고비의 10월'을 앞둔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미소 짓게 하고 있다. 부상 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가 다시 페이스를 되찾아가는 가운데,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옮긴 유럽파 후배 선수들이 빠르게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적 후 첫 공격포인트가 늦어져 팬들을 애타게 했던 '막내' 이강인(마요르카)이 23일(이하 한국 시간) 드디어 마수걸이 골을 터뜨렸다. '거품' 레알 마드리드와의 정규리그 원정 경기

(마요르카 1-6 패)에 선발 출전해 팀이 0-2로 뒤지던 전반 25분 골대 왼쪽 하단 구석에 꽂히는 원발 중거리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세계적인 스타 수비진을 앞서서도 기죽지 않고 당돌한 드리블로 상대 진영을 헤집고 고강도 슈팅으로 득점까지 올렸다. 좀처럼 출전 기회를 주지 않던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새 등지를 튼 뒤 3경기 만에 올린 첫 공격포인트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1, 2차전이 열린 지난 9월 A매치를 앞두고 이강인은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강인이 용트림하면서 벤투 감독은 2선 공격지원 선발 작업에 더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벤투 감독은 10월 A매치에 나설 대표선수 소집 명단을 27일 발표한다. 이강인은 그 전날 밤 9시에 오사수나와 정규리그 홈 경기를 치른다. 9월 A매치에서 부진에 종아리 부상까지 겹쳤던 황의조는 컨디션을 빠른 속도로 회복해가고 있다. 황의조는 이날 몽펠리에와 원정 경기(3-3 무승부)에서 전반 18분 베팅같은 25m 중거리슈트로 1-1 동점골을 넣었다. 지난 19일 생테티엔을 상대로 1, 2호골을 넣은 황의조는 2경기 연속골을 신고하며 '부활'을 선언했다. 다만, 경기 종료 직전 허벅지에 불편감을 느껴 교

체된 것은 '작은 불안감'을 남겼다. 잉글랜드에서는 '에이스' 손흥민이 종아리 부상을 예상보다 일찍 떨치고 그라운드로 복귀한 가운데 새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주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울버햄프턴 데뷔전이던 왓퍼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폭발한 황희찬은 이날 토트넘과의 리그컵 32강전에서 처음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다. 토트넘이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이겨 16강에 올랐지만, '코리아 리그'만 놓고 보면 후반 교체 출전한 손흥민보다 황희찬이 더 빛난 경기였다. 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황희찬은 2-2 동점골 장면에서 시발점 역할을 했다. 브루노 라지 울버햄프턴 감독은 그에게 승부차기 1번 키커를

맡기며 '합격점'을 줬다. 이런 가운데 '괴물 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도 터키 슈페르리그에 일찍 적응해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이적 뒤 공식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최근 3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다. 벤투호에 10월은 최종예선 최대의 고비다. 7일 시리아를 상대로 홈에서 3차전을 소화한 뒤 중동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나 12일 '난적' 이란과 4차전을 치러야 한다. 중동 팀과의 이번 2연전에서 승수를 쌓지 못하면 벤투호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이런 가운데 핵심 전력인 유럽 리거 여럿이 동시에 상상을 보는 점은 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광주FC, 울산으로 '대어 사냥' 나선다

내일 K리그1 32라운드 원정 경기

투혼의 광주FC가 울산으로 '대어 사냥'을 나선다. 광주는 25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울산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추석 연휴 기간 안방에서 2연전을 치렀다. 18일 진행된 제주와의 30라운드 경기에서는 경기 막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고, 21일 진행된 전북전에서는 상대의 자책골에도 페널티킥 실축과 골키퍼 윤평국의 아쉬운 실수로 1-2패를 기록했다. 전북전 패배로 5경기에서 무패(3승 2무) 행진은 끝났지만, 광주는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했다. 선제 실점에도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탄탄한 조직력과 끈질긴 수비로 괴롭혔다.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가 아쉽다. 9위에 자리했던 광주는 FC서울과 성남FC에 밀려 11위로 물러났다. 광주가 1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9위 성남과 승점 1점 차, 서울과는 동물이지만 득점에서 1점 뒤져 10위 자리를 내줬다. 박빙의 순위 싸움이 전개되고 있지만 더 물러나면 안 된다. 광주는 전북에 이어 다시 한번 '난적'을 만난다. 아시아 챔피언이자 강력한 리그 '우승후보'인 울산을 적지에서 상대해야 한다. 최정방 오세훈을 비롯해 이동준, 이동준, 바코, 윤빛가람, 김태환, 설영우, 불투이스는 물론 골키퍼 조현우까지 리그 최고의 선수들이 각 포지션에 포진했다. 하지만 울산에도 빈틈은 있다.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분주한 9월을 보내고 있다. 광주는 김주공과 엄원상을 앞세워 체력 고민에 빠진 울산 공략에 나선다. 김주공은 전북전에서 쉬었지만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발끝이 매섭다.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엄원상의 페이스도 좋다. 엄원상은 전북전에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며 광주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엄지성과 허을도 패기에 경험을 더해 광주의 새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광주가 끈끈한 조직력으로 상대를 막고, 엄원상을 앞세운 역습으로 울산전에서 승점 사냥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편 연패에 빠진 전남드래곤즈는 아산으로 가서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 지난 13일 대전 원정에서 1-2로 지면서 원정 무패 신기록 행진을 중단한 전남은 18일 최하위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도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반 14분 사무엘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후반 25분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44분 박창준에게 역전골을 내주고 2연패를 기록했다. 두 경기 연속 2실점을 하면서 전남의 '짚물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3위 대전과는 여전히 승점 4점 차 4위다. 1위 김천상무는 승점 13점 밖으로 멀어졌다. 전남은 수비 전열을 가다듬고 26일 오후 6시 30분 충남아산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군단' 9월 부상에 신음

박준표·고영창 엔트리 말소



'호랑이 군단'이 9월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두산 베어스와 11차전을 앞두고 엔트리를 교체했다. 박준표와 고영창을 말소한 KIA는 '대줄루키' 박건우와 '고졸루키' 최용준을 엔트리에 등록했다. 박건우는 프로 첫 1군 등록이다. 고영창과 최용준은 코로나19 2차 접종에 따른 특별 엔트리 등록, 말소이고, 박준표는 부상으로 인한 조치다. 올 시즌 허리 부상 등으로 고전했던 박준표는 뺏조각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으로 일찍 시즌을 접게 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박준표가 시즌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팔꿈치에 뺏조각이 있다. 시즌 초반부터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다. 뺏조각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선수가 있지만 박준표는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수술로 뺏조각을 제거할 예정이다. 재활에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볼펜에서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주던 김재열이 재활군이 됐다. 김재열은 지난 14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베이스 커버 과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다. 검진 결과 발목 근육 미세 손상 진단을 받으면서 3주 가량 김



박준표

스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을 반전을 기대했던 박준표도 뺏조각 수술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는 등 KIA가 9월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내야수 강경학이 오른 엄지발가락 타박과 열상으로 가장 먼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12일 NC와의 경기에서는 이정훈이 부상자가 됐다. 이날 대타로 나선 이정훈은 유격수 땅볼 때 1루 베이스로 향한 뒤 발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구급차에 실려 나갔다. 이정훈은 발목 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다. 13일 이정훈과 함께 '특급 루키' 이의리도 엔트

리에서 말소됐다. 12일 NC전 선발로 나선던 이의리는 경기 도중 왼손 중지 손톱이 깨졌고, 밸런스 등 문제를 고려해 엔트리 말소가 결정됐다. 뜨거운 타격 페이스를 보여준 류지혁의 걸음도 잠시 멈추게 됐다. 류지혁은 17일 삼성 원정 경기에서 타격을 하고 1루 베이스로 향한 뒤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말소됐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휴식이 결정됐다. 부상 악재 속 날치 영향으로 전상현의 복귀 속도도 늦춰질 전망이다. 전상현은 주중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원정경기에서 등판을 소화한 뒤 주말 연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21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고, 22일에는 강우 콜드로 일찍 경기가 끝나면서 전상현의 등판이 이뤄지지 못했다. 23일 경기가 없던 KIA는 24일부터 함평 철린저스필드에서 SSG 랜더스와 3연전을 갖는다. 이 경기를 통해서 전상현의 복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악재 속에서 새 외국인 투수 보 다카하시의 KBO리그 데뷔전 준비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벗어난 다카하시는 20일 라이브 피칭에 나서 4이닝 동안 60개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그리고 1군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서 25일 SSG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